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다시 공무원으로

광주시 재공모 않고 행정직 3급 파견기로 결정 노동협력관도 외부 공모 않고 공직자 기용하기로

광주시가 산하 출연기관인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재공모에 나서지 않고 행정직 공무원(3급)을 파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는 19일 "공석 중인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개방형 재공모와 행정직 공무원 파견을 두고 검토한 결과, 시정 행정직 공무원 파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김성정 대표이사 외 신임 전시부장 모두 문화예술기획 전문 가리는 점에서 사무처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기 위해선 행정직 공무원 파견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관례에 비추면 통상 3급 공무원이 갖던

자리로, 늦어도 다음주 중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공개모집에 들어간 바 있다. 2017년 7월부터 공석 중인 사무처장에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를 기용해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혁신안의 하나인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 논의가 그간 묵살되다가 현실화될 것처럼 보였다.

전국에서 문화예술 전문가 등 8명이 응모했고, 서류절차 탈락 없이 전원 면접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사무처장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서 2차 공모와 행정직 공무원 파견을 놓고 1주일여 고민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행정직 공무원 파견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2015년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을 지낸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 상임이사는 "당시 혁신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민간사무처장제 도입이었다. 퇴직 앞둔 공무원을 파견보낼 게 아니라 개방형 통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 '적격자가 없으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찾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공모 절차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는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을 지낸 또다른 인사는 "민선 7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문화계가 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개방형 채용과 관련한 정책질의에서 이용섭 당시 후보도 '하

다'고 답했다"면서 "비엔날레 정권과 인사규칙까지 바뀌어 외부 공모를 해놓고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며 공무원을 파견한다면 이는 논가리고 아쉬운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 노동협력관 자리도 뒷걸음치는 마찬가지다.

전임자가 임용 전 범죄경력 드러나며 불명예 퇴직했는데, 후임자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며 행정직 공무원 기용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그 자리는 노동계와의 교류·협력이 주요 업무다.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안정적일지는 몰라도 혁신적인 업무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광주시가 외부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내달 23일까지 공모 선정면 5년간 50억 지원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오는 9월 23일까지 공모한다.

도는 오는 23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시·군 공무원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

신청서는 9월 16일부터 1주일간 접수한다. 10월까지 서류평가·현장평가·정책평가 등을 거쳐 최종 2개 섬을 선정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 매년 10억 원씩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된다. 예년 사업비보다 10억원이 늘었다.

도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수 30인 미만 섬과 읍면 소재지 섬에 대한 응모 제한을 폐지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 해인 2015년 여수 남도를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재는 14개 섬이 뽕혀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4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8개 섬에서 마을식당·카페·게스트하우스·특산물 판매 등으로 3년간 14억 7000만 원의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했다.

가고 싶은 섬 사업 시행 이후 45가구 59명이 귀어했으며, 2014년 27만 명이었던 섬 관광객은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91만 2000명으로 늘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섬이 되도록 매력적인 섬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전당 야외물놀이장 2만2000명 다녀가 인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야외 물놀이장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운영한 문화전당 물놀이장 입장객은 하루 평균 730명, 총 2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당 주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시와 문화전당 간 협력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운영됐다.

방학을 맞은 학생, 가족 단위 시민 등이 찾아 지난해보다 입장객이 5000여명 늘었다. 수영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의 이용도 많았다. 시는 안전요원 23명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시민 안전에 힘을 쏟았다. 탈의실, 야외 샤워장, 물품 보관함 등 시설을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박 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해 지난해보다 많은 이용객이 다녀갔다"며 "도심 물놀이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설 개선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출연기관장 간담회 주재하는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공사·출연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산하기관장 잇단 공모...후임 인선 관심

신용보증재단·복지재단·여성가족정책관 등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장 및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와 후보 접수 절차가 잇따르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출연기관인 전남 신용보증재단과 전남복지재단이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현 최형천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3일 만료되는 데 따라 오는 29일까지 임기 2년의 후임 후보자 공모에 나선 상태다. 지난 공모에서도 10여명이 도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전 광주신보 이사장

을 지냈던 임형진씨를 비롯, 거론되는 후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화가 된 임씨는 "진지하게 고민중"이라고 했다.

전남복지재단도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임기 2년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를 받는다. 현 광대석 대표이사는 "(공모 참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후임자로 누가 나설 지 이목이 쏠린다. 당장, 전남도 공무원을 지낸 배양자 동산대 교수와 신현숙 전 보건복지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를 상태로, 배 교수는 "생

각 없다, 신 전 국장은 "주변 권유도 있어 생각중"이라고 했다. 이들 외에도 물밑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는 개방형 직위인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선도 눈길을 끈다. 허경숙 현 여성가족정책관의 임기가 다음달 17일로 만료되면서 민간 전문가를 선택할 지, 내부 공무원 중 발탁할 지가 관심사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출연기관 인사의 경우 자칫 '낙산' 인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가을 태풍 총력 대응

예방·대응·복구 3단계 대책 마련

광주시는 가을 태풍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등 그동안 가을 태풍 피해가 컸던 사례를 고려해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3단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 재난 취약 시설, 예·경보시스템, 재난 상황 관리, 민관 협력체계, 재난지원 관리, 구호 및 긴급지원체계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예방단계에서 붕괴·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공사장, 노후주택, 비닐하우스 등 재난 취약시설 전수조사한다. 특히 법정관리시설에서 제외된 5m 이하 급경사지 등 관리 사각지대의 안전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

다

대응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폐쇄회로(CC) TV, 예·경보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주관부서의 임무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자체 훈련 실시 여부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민관 협력 체계, 재난지원관리 실태, 구호 및 긴급지원체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지역 맞춤형 '안전 광주 대진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감찰제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미흡한 분야는 생활밀착형 재난 훈련인 '안전 광주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반영해 재난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10t 미만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설치 지원 추진

전남도는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항해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구명·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단파대 무선전화 357대 등 4종 3503대의 선박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5t 미만 소형어선 보급 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 시

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다.

10t 미만 연안 어선 보급 장비는 팽창식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다.

구매 비용의 60%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1억 원의 사업비로 총 9624대의 항해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